

도요보 - 인도네시아의 니팅공장과의 제휴 강화

일본 내에 니팅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도요보는 약 97%를 출자한 인도네시아의 원형편(環編) 염색 가공공장인 “도요보·니팅(東洋紡·knitting 약칭 : TKI)”과의 제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도요보는 본사의 스포츠·이너(inner) 부장이 TKI의 사장을 겸임토록 하고, TKI를 도요보의 니트부문 조달공장(調達工場)의 하나로 확정하고, 그 동안 일본의 기존 니트 생산 거점에 위탁해 오던 상품과 서로 중복되지 않는 신규상품의 생산을 TKI에 위탁하기로 되었다.

TKI는 월간 150톤의 원형편·염색 능력을 갖고 있다. 작년(2002년)에는 일본 굴지의 제조·소매업자에게 생산능력의 상당부분을 공급해 주고 있었는데, 이 소매업자와의 거래가 끊어져, 지금은 월 생산량이 생산능력의 절반인 75톤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다.

도요보는 TKI공장의 조업을 소생시킴과 동시에 도요보의 사업에도 유익하도록 TKI를 도요보의 조달공장으로서 특수소재에 의한 편성가공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공장의 조업도를 향상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에는 신흥(新興)산업이 45%, 도요보가 30% 출자한 봉제 합판인 “신흥·도요보·기스텍스·가먼트(약칭 : STG)”가 있다. TKI를 STG와 연결시켜 활용함으로써 니트지 봉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도요보는 금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니트제 드레스·셔츠인 “젯·셔츠(Z-shirts)” (역자주 : Y-셔츠가 직물제이므로 니트제를 Y의 다음자인 Z·셔츠로 부르고 있음)지의 생산도 전적으로 TKI에 위탁하기로 하였다. 도요보는 작년 춘하상품 판매전으로부터 “젯·셔츠”를 시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호평을 받고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시장에도 이 상품을 소개

하고 있다.

도요보와 TKI가 제휴한 최초의 인기상품이 될 것 같다고 하는 “젯 · 셔츠”도 STG의 봉제 능력을 활용하여 생산한다. STG는 니트지의 봉제품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드레스 · 셔츠의 봉제도 주문받고 있어, 드레스 · 셔츠 봉제에 대한 노하우도 잘 갖추고 있다.

TKI의 월간 염색량은 6 8월경에는 생산능력의 2/3인 100톤 정도로 회복될 것이다. 용도별 내역은 종전부터 위탁을 받고 있는 일본 스포츠 · 메이커의 야구 유니폼이 10톤, “젯 · 셔츠”가 30톤, 폴로 · 셔츠가 30톤, 산업자재가 5 10톤, 이너가 5톤, 인도네시아 시장용 셔츠가 5 10톤으로 되어 있다.